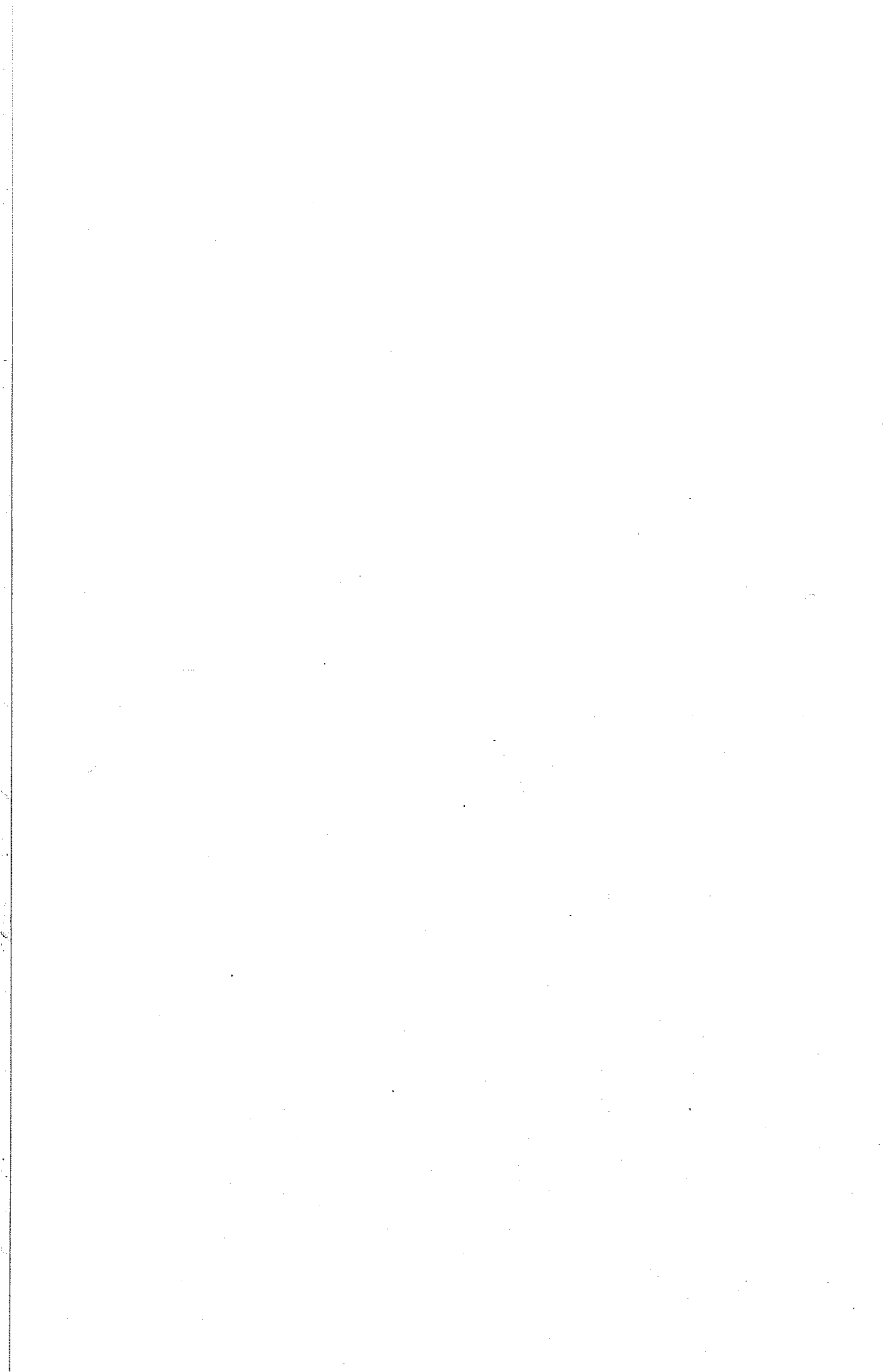


Critical Review for Buddhist Studies

# 연구사

한국유식학연구사 ..... 김성철



# 한국유식학연구사

김성철

## 글머리에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불교 연구는 일제 시대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있다. 당시 연구자들은 유학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일본 불교 연구의 영향 아래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해방 후에도 지속된다.<sup>1)</sup> 이는 80년대 중후반 까지도 지속되다가 90년대부터 서서히 벗어나게 된다. 근대 불교학 연구의 한 분야인 유식학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니,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오히려

1) 신규탁(1999: 30), 이에 비해 제도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1960년대로 잡는 시각에 대해서는 심재관(2001: 32) 참조.

유식학 연구가 이러한 근대 불교학 도입 과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양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서구 근대 불교학이 가진 역사적 배경과 과학적 토대, 그것의 도입 과정과 그에 따른 몇 가지 양상 등에 대해서 국내 불교학계에서 논의가 있어 왔다.<sup>2)</sup> 본고는 그런 논의를 염두에 두면서 근대 불교학의 한 분야인 유식학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적인 연구 성과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아무리 그럴듯한 큰 이야기와 논쟁도 구체적인 연구 성과의 토대 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공허한 말놀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나무만 보고 숲을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짧은 글 속에서 숲과 나무를 함께 보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기는 힘들겠지만, 그러한 문제의식은 놓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 1. 자료의 범위

본고의 기초 자료는 원칙적으로 유식학에 관하여 한국어로 쓰여진 논문 및 저술로 한정한다. 따라서 한국인이 쓴 저술이라 하더라도 외국에서 획득한 석박사 학위논문과 외국 학회에서의 발표 논문 등은, 그것이 국내 유식학 연구에 현저한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제외하였다. 반대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한국어로 저술한 논문은 포함시켰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국내에서 발표되었다 하더라도, 외국인에 의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한국 유식학 연구 논문은 제외하였다.<sup>3)</sup>

구체적으로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전문 학술지<sup>4)</sup>에 실린 논문과 그에 준하는

2) 심재관(2005: 1)

3) 이 원칙의 유일한 예외는 Uhlmann Patrick R.에 의한 원측 연구다. 그는 인도철학과 학부와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내국인 취급을 하였다.

논문, 국내 대학에 제출한 석박사 학위 청구 논문을 중심으로 하였다. 대중 잡지에 실린 경우라도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논문이거나 학술적으로 가치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 자료에 포함시켰다. 전통 강원 혹은 사찰에서 발행하는 논집에 실린 논문의 경우에도 기고자가 강원 강사 이상일 경우는 포함시켰다.<sup>5)</sup>

한편 이미 발표된 논문을 모아 단행본으로 출판한 경우, 학위 논문 중 전부 혹은 일부를 수정하여 단행본이나 논문집에 실은 경우는 내용상의 큰 변화가 없는 한 초출본을 기준으로 하여 논하였다.<sup>6)</sup>

## 2. 시기 구분

근대적 의미의 유식학 연구가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29년 혹은 1932

4) 현재 불교계에서 간행하는 전문 학술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에서 간행하는 학술지로는 동국대에서 간행하는 『불교학보』, 『전자불전』, 『불교원전연구』, 『대학원연구논집』, 『동국사상』과 중앙승가대에서 간행하는 『논문집』, 『불교와 사회복지』, 『승가』, 위덕대에서 간행하는 『밀교학보』 등이 있다. 전문 학회 또는 연구소 간행하는 논문집으로는 『한국불교학』, 『불교연구』, 『보조사상』, 『백련불교논집』, 『가산학보』, 『불교학연구』, 『불교어문논집』, 『대각사상』, 『원효학연구』, 『정토학연구』, 『회당학보』, 『한국선학』, 『구산논집』, 『덕승선학』, 『천태학보』, 『태고학보』, 『불교문화학보』 및 『수다라』, 『인도철학』, 『선무학술논집』, 『종교교육학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 등이 있어 모두 30여 종을 헤아린다. 이외에도 불교 관련 논문을 수록한 전문 학술지로서 『철학』, 『동양철학』, 『종교연구』, 『철학연구』, 『철학과 현상학 연구』 등에 실린 유식학 관련 논문도 포함시켰다. 이상의 논문은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불교관계 논저목록검색 서비스(<http://www.sutra.re.kr/>)에 기반하여 동국대학교 전자도서관(<http://lib.dongguk.edu/index.jsp>)와 KSI 학술 논문 정보(<http://www.papersearch.net/>) 및 한국교육학술 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4u.net/index.jsp>) 등을 참조하여 필자가 수정·보강한 것이다.

5) 예를 들어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간행하는 『수다라』가 그 경우다.

6) 예를 들어 『유식사상연구』(오형근 1983), 『유식사상』(김모주 1997), 『한국유식사상사』(이만 2000) 등. 그러나 이 단행본에 새롭게 수록된 논문일 경우는 당연히 그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필자가 초출본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리하였다.

년의 일이다. 동경 유학 시절의 허영호(1899~?)가 범본 『유식삼십송』을 일역에서 중역한 것과 막 일본 유학을 마친 김법린(1899~1964)이 『유식이십론』을 범본에서 번역한 것이 그것이다. 이 시기는 근대 유식학 연구의 맹아기라 할 수 있다.

이후 유식학 연구는 해방과 전쟁 등 사회적 혼란기를 거치면서 사실상 휴지에 들어간다. 조명기에 의한 원측 연구가 1941년에 발표되고 홍현식에 의한 석사학위 논문(『唯識宗系の 賴耶緣起論에 對하여』, 전북대학교대학원, 1956)이 나왔지만, 지속적인 연구가 재개된 것은 1960년대 중반 무렵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유식학 연구사 뿐 아니라 한국 불교학 연구사에서 1960대 중반은 상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해다. 1962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 창립되고 다음 해에는 최초의 불교학 관계 전문 학술지인 『불교학보』가 창간되었다. 1964년에는 한역 경전을 번역하기 위한 동국역경원과 함께 한문 문헌 중심의 불교 연구에서 벗어나 산스크리트와 팔리어, 티벳어 문헌 연구 및 인도사상과의 비교 연구라는 목표아래 인도철학과가 개설된다. 이 시기는 김법린이 동국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목정배와 오형근은 각각 『근본식연구』(1964년)와 『아뢰야식연구』(1967년)라는 제목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데, 그들을 실질적으로 지도하였던 김동화가 『유식학개론』을 펴낸 것이 1968년의 일이다. 실로 이 시기가 현재에 이르는 유식학의 연구 경향을 규정했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70년대와 1980년대 후반까지는 유식학 연구의 전개기라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오형근은 이 시기에 발표된 유식학 관련 논문의 절반 이상을 발표하면서 왕성하게 활동한다. 이 시기의 다른 학자들의 논문은 대부분 원측에 관한 것이다.

1990년대 이후는 유식학 연구의 성장기라고 할 수 있다.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걸쳐 『불교연구』(85), 『보조사상』(87), 『인도철학』(89) 『가산학보』

(92) 등이 잇달아 창간되고, 불교학 연구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유식학 연구도 양과 질적인 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이상의 시대 구분에 따라 그 기간 동안 발표된 논문의 수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2)는 표 1)을 3편 이상<sup>7)</sup> 발표한 학자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시기별 논문 편수

시기	맹아기	태동기	전개기		성장기		계
	해방전	해방후~69년	70년~79년	80년~89년	90년~99년	2000년~05년	
일반논문	0	6	28	39	124	63	260
원전번역 <sup>8)</sup>	8(2) <sup>9)</sup>	3(1)	2	4	7	2	26(18)
석사논문	0	4	2	10	42	16	74
박사논문	0	0	1	2	10	13	26

표 2) 연구자별 논문 편수

시기	맹아기	태동기	전개기		성장기		계
	해방전	해방후~69년	70년~79년	80년~89년	90년~99년	2000년~05년	
오형근	0	1	17	17	12	1	48
이 만	0	0	0	7	22	10	39
김모주	0	0	0	0	15	0	15
이지수	0	0	0	3	8	1	10
정영근	0	0	0	1	4	4	9
김사업	0	0	0	0	6	2	8
김치은	0	0	0	0	2	5	7

7) 석박사 학위 논문은 제외한 것이다.

8) 원전번역 원전번역은 논문집 등에 실린 산스크리트어 혹은 티벳어로부터의 번역을 가리킨다. 일역으로부터의 중역도 있으나 역사성을 고려하여 포함한 것도 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원전번역도 일반논문에 포함해 서술하였다.

9) 괄호는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재한 같은 작품의 번역을 하나로 취급한 것이다.

시기	맹아기	태동기	전개기		성장기		계
	해방전	해방후~69년	70년~79년	80년~89년	90년~99년	2000년~05년	
안성두	0	0	0	0	0	7	7
신현숙	0	0	1	2	2	0	5
전명성	0	0	0	0	5	0	5
최종남	0	0	0	0	3	1	5
한자경	0	0	0	0	4	1	5
김법린	4(1)	0	0	0	0	0	4(1)
김성철	0	0	0	0	0	4	4
방 인	0	0	0	0	4	0	4
배의용	0	0	0	0	3	1	4
송찬우	0	0	0	0	3	1	4
원의범	0	0	1	2	0	0	4
정태혁	0	3(1)	1	0	0	0	4(2)
허영호	4(1)	0	0	0	0	0	4(1)
김동화	0	2	1	0	0	0	3
김제란	0	0	0	0	0	3	3
조명기	1	2	0	0	0	0	3
최동희	0	0	3	0	0	0	3
한종만	0	0	0	1	2	0	3

### 3. 시기별 유식학 연구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식학 연구는 시기적으로 70년대와 80년대의 완만한 상승세를 거쳐 1990년대에 일반논문과 학위 논문을 포함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도 그러한 흐름은 이어지지만 증가세는 멈춘다. 1990년대에 유식학 연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불교학 연구 일반의 경향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 1) 맹아기의 유식학 연구

맹아기인 해방전에 허영호와 김법린에 의해 『유식삼십송안해석』과 『유식이십론』에 대한 번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두 사람은 유학 경험을 통해 유럽과 일본의 근대 불교학을 접하고 이를 국내에 도입하고자 했다.

허영호는 범어사 출신 승려로서 범어사가 운영하는 지방학림 재학 중 3·1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옥고를 치룬다. 그는 1926년 부산에서 발간된 대중 문예 잡지 『평법』의 편집인 및 발행인으로 활동하고, 1928년 경에는 신간회 동래지회의 주요 인물로도 활약하였다. 그후 다이쇼(大正)대학 불교학과로 유학하고 1932년 귀국한다. 귀국 후 조선불교청년총동맹 제2대 집행위원장, 조선불교교정연구회의 연구부장, 중앙불전 교수 및 학감 등을 역임하면서 학문 활동을 병행한다.<sup>10)</sup> 해방직후 복교된 해화전문의 학장과 제헌의회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한국전쟁의 와중에 납북되어 소식이 두절된다.<sup>11)</sup>

그는 유학시절 『유식삼십송안해석』을 번역하고, 귀국 후에는 『반야심경』을 포함한 반야경류의 산스크리트 원전 번역을 시작으로, 산스크리트 및 팔리어와 비교를 통한 조선어의 발음 연구를 비롯한 한국어 연구, 『대승기신론』의 번역을 포함한 원효 사상 연구, 『원인론』과 『천태사교의』의 번역을 통한 화엄과 천태 사상 연구, 『아미타경』 등의 경전 번역, 당시 불교계 현안에 대한 논설 등 다방면에 걸친 연구 성과를 내놓는다.<sup>12)</sup> 그의 번역 태도는 산스크리트본을 중

10) 김광식(2000a: 324-325).

11) 『녹원』, 1957, p.102; 김광식(2000b: 191).

12) 그의 학문활동은 1926년 구판 『불교』25호(1926)부터 시작하지만 본격적으로는 구판 『불교』57호(1929)로부터 신판 『불교』44호(1943)까지 이어진다. 일본 유학시기의 글들은 『금강저』17호(1929.5)부터 20호(1932.2)에 실려 있지만 남아있지 않고, 『금강저』1호부터 20호까지의 목차가 21호에 실려있어 확인만 가능하다. 일제 말기의 친일 논란 및 납북으로 인해 그의 학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반종교 운동과 강원 교육 제도 개혁에 관한 그의 견해에 대한 연구는 김광식(2000: 56-59, 324-334)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

심으로 한역 제본과의 비교를 통해 가능한 한 쉬운 우리말로 원래의 의미를 설명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번역 태도와 방식은 지금도 산스크리트 원전 번역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sup>13)</sup>

김법린은 은혜사로 출가했다가 범어사 불교전문강원에서 수학한 후 범어사로 적을 옮긴다. 그후 서울의 불교 중앙학림에 재학하다 3·1운동 때 다시 범어사로 내려와 허영호 등과 함께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다. 이후 일제의 체포를 피해 상해로 간 그는 1920년 4월 남경의 금릉대학에 입학하고 그해 10월에는 프랑스로 떠난다. 1923년 11월에 파리대학교(소르본대) 철학부에 입학하고 1926년 11월에는 파리대학원에 진학하여 근세철학을 연구했다. 그는 1928년 1월에 귀국했지만 1931년 고마자와(駒澤)대학에 유학하여 산스크리트어와 인도철학을 다시 공부한다.<sup>14)</sup> 해방 후에는 3대 문교부 장관, 3대 민의원, 초대 원자력 장관, 동국대 총장 등을 역임하였다.

김법린은『유식이십론』의 번역과 연구 이후 프랑스 불교학을 소개하는 논문 한편 이외에는 연구 성과를 내놓지 못하였지만, 그의 학문 태도는 『유식이십론』의 번역에 이은 연구논문에 잘 나타난다. 그는 전통적인 불교연구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현대불교학의 연구 방법론으로서 한역중심의 연구에서 탈피한 원전연구를 강조한다. 그는 이역본의 상호대조, 역본과 원전의 대조를 통한 바른 텍스트의 확립을 위한 언어학적 비교연구, 이에 기반한 원전의 비판적 연구, 이를 전제로한 경전의 성립사적 연구를 현대불교학 연구의 초점이라고 지적한다.<sup>15)</sup>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한 것이 바로 그의 『유식이십론』 번역이다.

13) 80년대 이후에 발표된 이지수의 일련의 번역을 보라.

14) 김광식(2000c: 293-296, 304)

15) 김법린(1929: 7-8); 심재관(2005: 4-5)은 이것이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문헌학적 방법론과 놀랍도록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학문을 재생산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를 확보하지 못했고, 그것은 일회적인 개인 활동에 머물러 버리고만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식민지 경험과 해방, 전쟁과 재건이라는 근현대사의 과정에서 학문외적 활동에 정열을 소비할 수 밖에 없었던 외부적 요인이 보다 큰 이유를 차지할 것이다. 허영호는 남북 이래 친일 논란과 함께 한국 불교계와 불교학계에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한다. 하지만 김법린은 동국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불교문화연구원과 동국역경원 그리고 인도철학과를 설립한다. 이런 점에서 그는 근대 한국 불교학의 제도적 틀을 닦은 인물 중 한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 두 사람과 유사하지만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이 김동화(1902~1980)다. 그는 역시 승려 출신으로서 상주 동해사로 출가하여 1923년 금릉사 지방학교를 졸업한다. 그후 일본에 유학하여 1928년 릿쇼(立正)대학 전문부 종교과를, 1932년에는 릿쇼대학 학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1936년 같은 과 전임 강사가 되었지만 1940년에 사임하고 귀국한다. 귀국 후 그는 1941년 동국대학교 전신인 혜화전문학교 강사로 취임한다. 그후 정화의 와중에서 동국대를 떠난 1954년에서 1962년 사이를 제외하고는, 1973년에 정년 퇴임할 때까지 줄곧 동국대학교 교수로 활동한다. 1942년 「대승불교의 사상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신판 『불교』에 실는 것으로부터 국내의 학문 활동을 시작한 그는 1954년에는 근대 불교 최초의 불교개론서인 『불교학개론』을 출판한다. 그후 불교 유심사상의 발달사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1968년에는 『유식학개론』(등사판)을 출판한다. 그는 이후 원시불교와 대승불교, 선종사상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학문 세계를 펼친다.

그의 학문 태도와 방법론은 앞의 두 사람 특히 김법린의 그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김동화 자신이 일본 유학을 통해 불교학을 익히기도 하였으므로 서구의 문헌학적 불교 연구에 대한 인식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전통의 연장선 위에 서있다. 그는 불교학 연구 방법론으로서 논리적 방법과 역사적 방

법을 근간으로 하고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 등의 어학을 보조적으로 하며 주석적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sup>16)</sup> 하지만 그가 집필한 『유식학개론』에 그것을 적용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것은 『유식학개론』이 개론서라는 점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의 입장이 전통 법상종의 교의 체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 더 큰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sup>17)</sup> 김법린의 태도에 보이는 것처럼 ‘텍스트 자체를 성립사적으로 연구한다’고 하는 서구 문헌학적인 방법과 산스크리트본에 기초한 현대의 연구 성과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역할과 의의는 근대 유식학을 도입했다기 보다는, 조선 시대 이후 끊어진 전통 유식학의 맥을 다시 되살려 이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는, 위의 두 사람과는 달리, 동국대(일정 기간 동안은 고려대) 교수직을 통한 재생산 구조를 확보한다. 그 때문에 그의 학문적 태도와 방법은 이후 유식학 연구의 방향을 규정하게 된다. 학문 활동에서 재생산 구조(대학의 교수 등)의 중요성을 보게 되는 장면이다.

## 2) 전개기의 유식학 연구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개기의 유식학 연구에는 오형근(1932~)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그는 70년대에는 유식학 관련 논문의 절반 이상을, 80년대에도 절반에 가까운 논문을 발표하며 왕성하게 활동한다. 그는 이 시기에 유식 사상 성립과 전개에 대한 사상사적 논문, 중국 법상종의 교판에 관한 논문, 신

16) 김동화(1954: 30-36).

17) 그가 릅소대학에서 어떤 식의 방법론에 기반한 불교학을 익혔는지 확실하지는 않아 단언할 수 없지만, 그의 『유식학개론』은 예를 들어 加藤智遠의 『唯識綱要』(1913, 1939) 등의 전통 법상종 교의 해설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唯識綱要』는 眞宗 京都 中學 4년의 참고서로 편찬된 책으로서 전통 법상종의 교의 체계를 교과서적으로 해설한 책이다. 물론 그 내용은 김동화 자신에 의해 한역 원전을 중심으로 대폭 보강된 것이다.

라 법상종과 원측에 관한 논문, 원효의 유식 사상에 관한 논문, 아뢰야식론과 말나식론을 비롯한 심식론 일반과 심소론에 관한 논문, 수행론에 관한 논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논문을 골고루 발표한다. 이러한 그의 활동은 그의 스승 김동화가 조선 시대 이후 끊어진 전통 유식학의 맥을 되살려 이은 것을 충실히 계승한 것이다. 그 결과, 비록 학계에서나마, 유식학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연구자를 배출하여 다음 시기의 성장기를 위한 터전을 닦은 것은 그의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학문 태도와 방법은 매우 소박하여, 여러 차례의 논문집 서문에 자신의 학문적 업적이 방대한 유식 논서와 학설의 '정리'라고 표현하고 있다.<sup>18)</sup> 확실히 '정리'라는 표현은 지나친 겸손이지만, 그가 『성유식론』과 『술기』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법상 교학의 해설과 그에 대비되는(혹은 대비된다고 평가되는) 원측 사상의 해설이라는 틀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점에서 그는 이미 반세기 전에 김법린이 행한 비판의 화살을 빗겨갈 순 없을 듯 하다.<sup>19)</sup> 이러한 그의 학문 태도와 방법의 원인으로 먼저 그가 만학도로서 유학 경험을 통해 산스크리트와 근대 불교학적 방법을 익힐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64년에 개설된 인도철학과와 역할 분담을 통해 자신은 한역 문헌을 위주로 하려 했던 점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학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형근과 동시대의 고인진

18) 오형근(1983: 4); 오형근(1989: iii).

19) 김법린(1932d: 7); 從來 우리의 佛敎研究는 漢譯藏經에만 局限되얏으며 이 漢譯가운데도 한經이나 論에 數種의 異譯이 있다면 傳統의 嗜好, 選擇에 依하여 一種의 譯本에만 着眼하여왔다. 그러므로 唯識二十論의 研究도 玄奘譯本에만 局限되얏으며 그의 註釋, 즉 慈恩의 『述記』로써 二十論의 解釋에 關한 唯一의 權威로 삼아온 것이다. 그러나 出現의 時代가 멀고 傳法의 地域이 넓은 佛敎와 같은 古代思想을 現代學徒로써 研究코저 함에는 무엇보다 먼저 이 傳統의 研究態度和 方法을 轉廻하여야할 것이다. 視野를 훨씬 넓혀 各種의 譯本對照는 勿論, 直接原典을 闕查하여 煩鎖한 未流註釋의 罅罅에 싸여있는 思想의 原義를 正確히 把握하여야할 것이다.

(1934-1988)<sup>20)</sup>이나 구한말과 일제 시대에 활약한 몇몇 학자<sup>21)</sup>도 산스크리트어를 통한 불교 사상 연구에 힘을 기울인 예가 있다. 무엇보다 4가 대승 중 삼론과 유식은 중국 불교적 특성보다는 인도불교적 특성이 크다는 점, 법상종의 창시자인 현장과 구기 그리고 한국 유식학 연구사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측이 산스크리트의 대가였다는 점에서 산스크리트 문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형근의 유식학 연구 태도는 아쉬움을 남긴다.

한국 유식학 연구의 전개기에 산스크리트와 티벳어 원전에 기반한 근대 불교학적 방법을 적용한 서구의 유식학계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새로운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유식학에서 그러한 방식의 연구가 가진 의의를 알 수 있다. 유식학의 가장 기본적 사상 중 하나인 유식무경설을 근거가 되는 경문의 해석을 둘러싼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섭대승론』 2장 「소지상분」(대정31, 138b3-14)에는 유식무경설의 경증으로 『십지경』 「현전지」의 「三界皆唯有心」이라는 구절과 『해심밀경』 「분별유가품」의 識所緣唯識所現故 이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현재도 한국 유식학계에서 외계 대상을 부정하는 유심사상의 기원으로 당연시 되고 있는 『십지경』 「현전지」의 이 구절은 그러나, 산스크리트 원본과 티벳역 그리고 한역 제본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외계 대상의 부정이 아니라 자아의 부정이라는 맥락에서 서술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 있다. 「현전지」는 선정의 맥락에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12연기의 전 과정이 자아가 아닌 마음에 의해 주도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고, 선정의 맥락에서 외계 대상을 부정하는 의미에서 「三界唯心」은 『십지경』이 아니라 『반주삼매경』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sup>22)</sup>

20) 고익진, 「범어 한글 표기안 : 부 교정 한글신묘장구대다라니, 『동국사상』 5, 1970; 고익진, 「팔천송반야경: 범영한대조, 1986.

21) 예를 들면 이능화(『梵語譯解』, 『佛敎振興會月報』 제1호-4호, 1915)나 권상로(『梵譯類輯』, 『朝鮮佛敎月報』 제2호-4호, 1912); 『梵語略譯』, 『朝鮮佛敎界』 제1호-3호, 1916) 등을 들 수 있다.

『해심밀경』의 문장 또한 원래는 인식대상의 관념성을 표현하는 문장이 아니라 아비달마에서 식의 정의 곧 ‘식은 다만 대상을 (전체적으로) 알게 하는 것일 뿐’이라는 문장을 그대로 채용한 것이라고 한다. 동일한 문장을 그대로 채용하되 그 해석만 영상의 관념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sup>23)</sup> 『해심밀경』의 다음 구절에서 이어지는 외계 대상 일반의 유식성 선언은 삼매 일반의 체험을 아무런 논리적 설명없이 세계 일반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선언의 의도는 영상을 더욱 선명하게 산출하거나 혹은 진여를 작의하기 위한 것인데,<sup>24)</sup> 이는 유식설이 삼매 수행을 위해 요청된 이론일 뿐이라는 사실을 함축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 성과의 차이는 단지 산스크리트나 티벳어에 대한 지식의 유무 뿐 아니라 텍스트를 대하는 기본적 태도, 그리고 그것을 규정하는 종교적·학문적 전통의 상위에 기인할 것이다. 그러나 유식학 자체가 가진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유식학의 전개기에 서구적 근대 불교학의 방법론과 그에 따른 성과가 소개되지 못한 것은 한국 유식학의 발전을 지체시킨 한 요인으로 보인다.

전개기에 활동하기 시작한 또 다른 학자로 이만이 있다. 그는 80년 경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하여 성장기인 90년대에 더욱 왕성한 연구 성과를 낸다. 80년 중반까지는 종자설과 아뢰야식설 등 유식교학 일반을 연구하다가 방향을 돌려, 80년대 후반부터는 주로 인물을 중심으로 한국 유식 사상사의 집필을 위한 기본적 구도 아래 연구를 진행시킨다. 그는 90년대만 모두 22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왕성한 필력을 과시한다. 그의 논문은 대부분 한국 유식 사상사의 기초가 되는 문헌 연구와 인물 중심의 연구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의 학문 태도와 방법론은 오형근의 그것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22) Schmithausen(1976: 245-247).

23) Schmithausen(1984: 441)

24) Schmithausen(1984: 434)

오형근과 이만을 제외하면 전개기의 다른 학자는 대개 원측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이 시기에 원측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학자로는 황성기(1971), 고익진(1972, 1978), 정태혁(1974), 원의범(1975), 최동희(1975), 신현숙(1979, 1980, 1984), 한종만(1982), 정영근(1989) 등 중견 불교학자 중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90년대에도 이어지는 원측 연구 열기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 3) 성장기의 유식학 연구

70~80년대 꾸준한 발전을 모색해 오던 한국 불교학계는 90년대 들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새로운 연구 인력들이 대폭 충원될 뿐 아니라 그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각종 학회와 학회지의 창립, 차세대 유학생들의 귀국과 활발해진 국제 교류로 인한 새로운 연구 성과와 자료의 소개 등 이전과는 사뭇 다른 연구 환경을 맞게 된다.

이 시기에 나타난 새로운 경향 중 하나로 먼저 이지수에 의한 산스크리트 원전 번역을 꼽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이미 1986년에 세친의 『유식이십송』과 『유식삼십송』, 『삼상론』을, 1987년에는 『중변분별론』, 『상품』을, 1988년에는 〈부삼사〉 「진실의품」의 번역과 해설을 내놓은 바 있다. 90년대 들어서도 세친의 『오온론』, 티벳역을 비롯하여, 『중변분별론』, 「진실품」, 『대승장엄경론』, 「보리품」, 『유식삼십송안해석』 등의 번역을 발표한다. 이러한 그의 작업은 김법린으로부터 시작하여 1964년 정태혁에 의한 산스크리트본 『유식이십론통해』의 연재와 1971년 원의범에 의한 범한 대조 『유가사지론』 번역의 시안 발표 등, 간헐적으로 이어지던 산스크리트 원전의 번역을 중심으로 한 유식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그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그의 후속 세대는 유학 여부를 불문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산스크리트 원전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식학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가 서구 불교학의 문헌학적 방법론에 의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산스

크리트와 티벳어를 중시하는 태도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재생산해 낸 것은 그의 공헌이다.

그는 번역 방식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다. 티벳어로 남아있는 세친의 『오온론』을 번역할 때 시도한 일종의 공동번역이 그것이다. 공동번역은 여러 사람의 토론과 검증과정을 거침으로써 단독번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러한 공동 번역의 방식은 이미 한역 대장경이나 티벳 대장경이 번역될 당시에도 찾아볼 수 있다. 공동번역이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인력과 안정적인 자금 및 조직이 필요하므로 아직은 시기 상조일지 모르지만 점차 확산될 전망을 보이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최근에 유가행과 문헌 강독회에서 시도한 <보살지> 「진실의품」의 번역(불교원전연구 7, 2004)도 그 일례가 될 것이다.

이 시기는 80년대 중후반 이후 유학한 유학생들이 90년대 중반 이후 귀국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사실 80년대와 90년대의 유학 러시는 1920년대와 30년대의 유학 러시를 보는 듯 하며, 유학파를 바라보는 국내학자들의 태도와 상호갈등 또한 닮아있다. 30년대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수도 있었던 근대 불교학의 도입이 식민지와 전쟁의 과정에서 지체되었다면, 적어도 유식학 분야에서는, 오히려 90년대가 본격적인 서구 근대 불교학의 도입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sup>25)</sup> 또한 이 시기는 일본을 거치지 않고 유럽과 미국의 불교 연구 방법론과 성과를 직접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귀국하여 활동하는 학자로는, 유식학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구사학

25) 전통과 근대, 탈근대가 혼재하고 있는 90년대 이후 불교학계의 상황은, 일제식민지와 후기 자본주의 사회라는 외양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30년대와 달라 보이지 않는다. 30년대 불교계에서 간행된 잡지를 보면 현재의 불교학계가 가진 고민과 정확히 동일한 문제의식도 종종 발견된다. 이것은 그만큼 불교와 불교학의 근대화가 지체되었으며, 이제는 전통과 근대의 동시적 극복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 연구자인 이종철을 비롯하여, 최종남, 김사엽, 안성두 등이다. 이들은 이전 세대가 갖지 못한 정통 서구 문헌학적 훈련을 바탕으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성장기에 보다 전통적인 불교학의 바탕 위에서 유식학에 종사하는 학자로는 여전히 왕성한 필력을 과시하는 이만 외에 김묘주, 정영근, 김치온, 한자경 등이 있다. 이 시기 유식학계의 상황은 이 두 계통의 유식학자들이 혼재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성장기에 보이는 또다른 특징은 늘어나는 연구자 수에 대응하여 기존의 한국불교학회 외에 각종 학회와 연구회가 발족한 것과 그에 따른 학술 전문지가 속속 창간되었다는 점이다.

표 3) 수록지별 논문 편수(논문지명 옆의 숫자는 창간연도)

시기	맹아기		전개기		성장기		계
	해방전	해방후~69년	70년~79년	80년~89년	90년~99년	2000년~05년	
한국불교학(75)	0	0	3	9	16	12	40
불교학보(63)	0	2	6	7	11	3	29
기념논집류	0	0	1	2	26	0	29
동국사상(65)	0	1	4	3	1	0	11
동국대학원연구논집(71)	0	0	4	1	3	1	9
가산학보(92)	0	0	0	0	7	1	8
불교(구(24)/신(37))	8(2)	0	0	0	0	0	8(2)
불교학연구(2000)	0	0	0	0	0	8	8
인도철학(89)	0	0	0	0	3	5	8
불교연구(85)	0	0	0	2	1	5	8
보조사상(87)	0	0	0	0	1	6	7
修多羅(86)	0	0	0	0	7	0	7
구산논집(97)	0	0	0	0	3	2	5

표 3)에서도 볼 수 있듯이 5편 이상의 논문이 실린 논문집을 기준으로 할 때, 80년대 중후반에 창간된 각종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90년 대에는 『한국불교학』과 『불교학보』에 수록된 논문 수에 근접하다가 2000년도 이후에는 추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구자 및 단체의 다변화에 따라 기존에 불교학계를 주도한 두 학술지의 권위가 다소 퇴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sup>26)</sup>

#### 4. 분야별 연구

분야별 연구에서는 한국 유식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다고 보이는 몇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원전 번역 상황

앞서 몇 차례 언급했지만 여기서는 산스크리트 및 티벳어 원전의 번역 현황을 자세히 살펴 보자.<sup>27)</sup> 표 1)에서 보듯이 2005년 현재 모두 26(18)편이 산스크리트 및 티벳어 원전 번역으로 발표되어 있다. 그 중 일역으로부터 중역이긴 하지만 1929년 『유식삼십송안해석』이 번역된 이래 『유식삼십송』 및 그 안해석은 번역의 주대상이었다. 허영호 이래 삼십송 혹은 안해석 일부의 번역이 박종관(1979), 원의범(1982), 이지수(1986), 김묘주(1997), 이지수(1998) 등에 의해

26) 이는 다만 유식학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불교학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여기에 내포된 문제도 없지 않다. 현재 불교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100여 명 남짓한 연구자가 다양한 학회에 속하여 여러 학술지에 중복 발표함으로써 논문의 진적 수준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27) 유식학 관계의 한역 경론은 이미 모두 한글대장경 속에 번역되어 있다. 한글대장경에 관한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고 그것은 유식학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이루어졌다. 삼십송을 포함한 안혜석의 완역은 박인성(2000)에 의해 이루어졌다.

『삼십송』의 뒤를 잇는 것이 『이십론』의 번역이다. 김법린(1932), 정태혁(1964-5), 이지수(1986) 등이 번역하였지만 완역본은 김법린의 번역 뿐이다. 이 밖에 세친의 저작이라고 알려진 『오온론』(이지수 1992)과 『삼성론』(이지수 1992; 2001)이 번역되어 있다.

세친의 저작 이외에는 『유가사지론』 〈보살지〉 「진실의품」이 이지수(1988)와 유가행파문헌 강독회(2004)에 의해 번역되어 있으며, 『섭대승론』 「소지상분」 이기영(1993)에 의해 불역으로부터 중역되었다. 미륵 계통에 속하는 논서 중 『중변분별론』은 「상품」과 「진실품」이 이지수(1987, 1994)에 의해 번역되었으며, 박인성(2005)이 완역하였다. 『대승장엄경론』은 「보리품」이 이지수(1998)에 의해 번역되어 있다.

이상의 번역에서 특징적인 것은 세친의 『이십론』과 『삼십송』에 번역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 두 논서가 1925년에 산스크리트본이 출판되고 불역과 일역이 곧 이루어졌다는 점에 원인이 있다. 또한 『삼십송』은 『성유식론』의 저본이자 호법과는 다른 안혜의 주석이 남았다는 점에도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30년대에 이루어진 『이십론』의 완역이 그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유식삼십송안혜석』의 완역이 2000년에야 이루어진 점, 그리고 이 두 논서를 제외하고는 80년대 후반까지 산스크리트 원전의 번역이 없다는 점은 30년대 이후 한국 유식학계가 산스크리트 문헌을 얼마나 도외시해왔는가를 반증한다.

한역으로 백권에 달하는 『유가사지론』의 번역은 한 품에 불과하며 가장 중요한 소의경전인 『해심밀경』의 번역은 아직 없다.<sup>28)</sup> 동아시아 불교계에 『성유식

28) 한역으로부터의 번역은 한글대장경 외에 김묘주(1996)와 서대원(2001)에 의해 출판되어 있다.

론』이상의 영향을 미쳤던 『섭대승론』 및 같은 무착의 저작인 『아비달마집론』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유가사지론』의 절반과 『아비달마집론』의 일부 그리고 나머지 두 경론이 산스크리트본 조차 없이 티벳본으로만 전한다는 사실에 큰 원인이 있는 듯 하다. 아직 한국 유식학계가 티벳역을 한글화해낼 수 없는 역량이 없는 것이다.<sup>29)</sup> 『중변분별론』과 더불어 미륵 계통의 중요한 논서인 『대승장엄경론』도 이런 사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법상 유식학에서는 방계인 이 두 논서는 번역 뿐 아니라 연구에서도 양적으로 크게 뒤떨어진다.

굳이 문헌학적 방법을 따지지 않더라도 고전학의 연구에서 번역이 차지하는 위상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유식학 연구에서 이상의 문헌을 산스크리트 및 티벳어 원전에서 번역해 내는 작업의 시급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번역의 질에서도 문제는 발견된다. 가장 먼저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원전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학적·사상적 내용을 해명한 주석이 충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해설을 덧붙인 번역이라고 할지라도 자구의 해석에만 머무를 뿐 텍스트 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 본문의 올바른 번역 뿐 아니라 문헌학적·사상적 내용에 충실한 원전 번역은 가장 고도의 스칼라십을 요구하는 분야로서, 이 역시 한국 유식학계의 일천함을 반영하고 있다.

## 2) 주제별 연구

유식학 분야에 고유한 세부 주제는 크게 아뢰야식론을 포함한 심식론 일반, 유식무경설과 삼성설, 유식관을 포함한 수행론, 무주처열반론과 3중 불신론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여기에 기존의 사상을 유식사상으로 재해석한 여러 설들

29) 이는 개인적 역량 뿐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해줄 물적·제도적 역량을 포함한 것이다.

이 포함된다. 다음 표는 그 동안 발표된 논문을 주제별로 분석한 것이다.

표 4) 주제별 논문 편수

분야	논문편수	분야	논문편수
수행론	25	심소론	4
아뢰야식론	18	연기설	4
문헌	16	일승사상	4
사상사	11	계율	3
심식론	9	공사상	3
유식무경	9	교판론	3
역사	6	말나식론	3
종자설	5	삼성설	3
신앙	4	인과론	3

### (1) 심식론 연구

표 4)에서 드러나는 가장 특징적인 사실은 아뢰야식론과 말나식론을 포함한 심식론 분야가 30편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심식론과 관련깊은 종자설과 심소론을 더하면 40편에 가까운 논문이 심식론 관련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유식학이 전통적으로 인간의 심리를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그에 따라 심식론이 발달해 왔다고 간주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현대에도 이와 관련한 분야에 연구가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아뢰야식 관련 논문을 좀더 살펴보면 아뢰야식의 기원과 발달(오형근 1974, 오형근 1986), 아뢰야식의 구조와 측면(오형근 1968; 송찬우 1996), 아뢰야식연기설(황욱 1984; 전명성 1991), 아뢰야식의 인식대상과 인식작용(김사업 2000), 아뢰야식의 존재증명(김치은 2001), 아뢰야식과 무의식의 비교연구(이만 1981; 김성관 1990; 남수영 1995; 김묘주 1998) 등이 있다.

이 중 아뢰야식의 기원과 도입에 관해 가장 포괄적으로 연구한 것은 박사학

위 청구논문이기도 한 오형근(1986)의 논문이다. 그의 학문적 방법론이 가장 잘 나타나는 논문이기도 한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원시 경전과 아뢰달마논서 그리고 초기 유식학논서 상에 나타나는 심식설에서 아뢰야식의 기원을 '정리' 하려고 한 시도다. 그는 여기서 아뢰야식의 도입 이후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섭대승론』에 언급된 여러 가지 선행학설을 정리하고 있다. 하지만 아뢰야식 도입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멸진정에서 식의 유무 문제나 12연기에서 名色과 識의 상호의존에 관한 해석 문제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이는 아뢰야식이 멸진정이라는 특수한 삼매 체험의 가교(gab-bridge)로서 '신체에 부착하여 숨는 마음'이라는 의미에서 출발하여 '모든 잡염법이 결과로서 혹은 원인으로서 부착하는 마음'이라는 정반대의 의미로 발전하고 나아가 모든 번뇌의 원인이나 모든 유정과 기세간의 근거로 발전하는 과정을 이념사적으로 비판적으로 재구축하는,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다른 연구결과<sup>30)</sup>와는 정반대 방향에 서있는 것이다. 이는 방법론을 달리하거나 텍스트를 대하는 태도가 다를 경우 어떻게 그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 (2) 수행론 연구

아뢰야식을 포함한 심식론 일반을 제외하면 수행론에 관한 논문이 25편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 유식학파가 유가행파라는 이명으로 불리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강한 실천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것도 역시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유식학 연구사에서 수행론 관련 논문이 90년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표되고, 유학경험의 유무와도 관련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학 유무를 불문하고 현재의 연구자들이, 윤리와 인식을 분리시키는 서구 근대 인식론적 토대에

30) Schmithausen(1987).

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지와 행의 일치, 삶과 삶의 일치라는 전통적이고 불교적인 인식론적 토대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안성두가 발표한 일련의 논문이다. 그는 정통 서구적 문헌학적 방법론을 익혔고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의 발표와 발언에서도 서구 문헌학적 방법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유가행파의 견도설을 탐구하거나(안성두 2002, 2004), 4선근위를 통해 유가행파의 단초를 추적하는(안성두 2003) 그의 논문은 과연 그러한 문헌학적 방법론에 충실하다. 하지만 그의 논문은 불교학 아니 유식학이 가진 실천적 측면에 대한 모색을 놓치지 않는다. 아니 그의 관심은 오히려 불교가 가진 실천적 측면에 놓여있는 듯 하다. 이러한 그의 시도는 근대 불교학의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혹은 그에 대한 우려)<sup>31)</sup>을 최소화 혹은 극복하고 주체적 불교학을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의 근거 중 하나이자 전통과 근대의 동시 극복을 시작할 수 있는 지점 중 하나로 보인다.

### (3) 인물별 연구

다음으로 인물별로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자. 한국 유식학 연구사에서 인물 연구의 주대상은 말할 것도 없이 원측(613~696)을 꼽을 수 있다. 다음 표는 그것을 잘 보여준다.

31) 근대 불교학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문제로서는 서구에 대한 지적 종속, 전통과의 단절, 신앙행위를 전복시키는 이론의 등장(을 통한 교계 대중과의 단절), 학문과 종교(신앙)의 분리, 포괄적이고도 전체적인 불교이해의 부족 등이 거론된다(심재관(2005: 6, 8)).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우려는 그 자체로는 정당하다. 그것은 근대 불교학이 가진 성격을 바로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근대 불교학이 아직도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 그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아직도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점, 아니 과연 그것이 현실화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우려는 아직 심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6) 인물별 논문 편수

인물	논문편수
원측	47
세친	16
태현	10
안혜	8
원효	7
규기	4
도륜	4
무착	3

원측에 관한 연구는 이미 태동기에 3편으로 시작해 성장기인 70년대와 80년대에 각각 12편과 8편, 성장기인 90년대에 18편이 쏟아지는 등 식지 않는 열기를 과시하다가 2000년대에는 6편으로 다소 줄어든다. 여기에 석사 학위 논문 3편과 박사 학위 논문 4편(황성기 1976, 정영근 1994, 고영섭 1998, 양재경 1998)을 더하면 50여 편을 훌쩍 넘는다. 이와 같은 원측 연구 열기는 당연히 원측 교학의 뛰어난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원측의 저서로 남아있는 것은 현재 『반야심경찬』, 『인왕경소』, 『해심밀경소』 등 3편 뿐이다. 하지만 그의 영향은 중국과 신라 그리고 일본 유식학에 미쳤을 뿐 아니라, 『해심밀경소』는 티베터로도 번역될 정도로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게다가 신라 유식학은 그의 학문을 이은 도증과 태현으로 이어지는 상승의 계보를 갖고 있으므로 신라 불교의 연구를 위해서도 빠질 수 없는 인물이다. 현재까지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그는 신구 유식학을 종합하고,<sup>32)</sup> 법상종의 오성각별설과 삼승진실일승방편설에 맞서 일천제성불설과 일승진실삼승방편설을 주장한 학승으로 알려져 있다.<sup>33)</sup>

32) 정영근(1994).

33) 고영섭(1998).

그러나 원측에 대한 연구의 한켠에는 일제 시대부터 시작하여 60~70년대로 이어지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호교론과 결합한 민족주의는 원측을 규기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게끔 강요하였고, 그에 대해서는 신구 유식학의 종합이라던가 일승사상가라던가 하는 평가가 학계의 주류를 이루게 했다. 기존의 원측 연구에 대한 비판으로서 다음과 같은 울만의 지적은 새겨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 학계에서 원측을 다루는 태도는 문헌학적 방법의 태만과 이데올로기적 침윤으로 특징지어진다. 원측의 저작은 경론에 대한 주석이고 그것은 다른 경론으로부터의 인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인용들의 출처와 그 문장을 원측이 주석에서 사용한 방식을 먼저 분석하지 않고서는 원측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현존하는 원측의 저작에서 많은 인용문들은 다른 자료들로부터의 축약이 많고 오자로 점철되어 있다. 개인적인 견해지만, 원의범(1975)을 제외하고는, 원측에 대해 저술한 많은 한국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단지 문장을 추출하여 그들이 “원측의 사상”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조합할 뿐이다. 이와 동반하는 것이 원측을 중국 학자들의 성취와 대비되고 그것을 능가하며 고국의 명성을 휘날리는 망명자로 구축하려는 이데올로기적 관심이다.<sup>34)</sup>

현재과 같은 국가와 민족 개념이 없던 7세기 동북 아시아 상황에서 단지 지

34) Uhlmann(2000: 266, n.5). 나아가 Uhlmann에 따르면 원측의 주석적 태도에는 일승설과 삼승설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전략도 없었으며, 다만 엄격하게 양자의 해석 차이를 서술하는 것에 국한시켰다고 한다. 원측은 규기와 마찬가지로 현장에 의해 수입된 방대한 자료를 소화하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가졌다. 다만 규기와 다른 점은, 규기가 위계적인 가설에 기초해서 자신의 학파를 구축하려 한데 비해, 원측은 문헌학적 주석에 종사했다는 것이라고 한다 (Uhlmann(2000: 294)). 한편 그가 지적한 문헌학적 방법의 태만과 이데올로기적 침윤은 유식학 아니 불교학 전반에 대한 뼈아픈 비판으로도 들린다.

역적으로 신라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원측을 굳이 신라 불교사에 편입 시키려고 하는 것은 현재의 국가와 민족 개념으로 7세기를 재단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동북아시아 불교 연구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원측 연구는 여전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런 맥락에서 의미있는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넘는 것이 선행조건이 될 것이다.

## 글을 맺으며

역사를 묻는 것을 미래를 보는 일이다. 냉정한 평가와 반성 없이 전망을 세울 수는 없다. 지난 유식학사를 살피는 것은 앞으로 가야할 길을 찾기 위해서다. 이제까지 살펴본 한국의 유식학 연구사의 흐름은 근대의 좌절과 전통의 부활, 그리고 전통과 근대의 혼재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다. 한국 유식학 연구의 현재는 아직도 근대 이전이지만 우리에겐 탈(후)근대의 과제까지 주어져 있다. 전통과 근대의 동시 극복이라는 가능성과 희망의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외형적으로는 근대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전통의 심화가 아니면 안될 것이다. 그 첫 번째 과제는 유식학이 가진, 아니 불교가 가진 실천성의 회복이다. 앎과 삶이 일치하고 지와 행이 일치하는 동양적·불교적 전통의 회복이 유식학 분야에서도 아니 유식학 분야이기 때문이야말로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유식학의 성장기 국면에서 그런 가능성과 희망의 단초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전통으로 복귀하는 것이라면 비극으로 되풀이되는 역사의 좌절을 맞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전통의 심화를 위해서라도 근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한역 문헌 중심에서 탈피하여 산스크리트와 티벳어 문헌의 문헌학적 탐구를 통해 유식학이 제시하는 본래의 의미에 다가가는 것은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일보가 될 것이다.

방대한 유식학 문헌의 대부분은 아직도 고전어의 영역에 갇혀 있다. 비록 한글대장경이 존재하지만 학문적으로나 대중적으로나 도움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스크리트어로부터 혹은 티베트어로부터 직접 쉬운 우리말로 번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유식학의 대중적 기반과 학문적 기반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일제시대의 선구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이며, 90년대 성장기에서도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 되는 것은 제도적·물질적 지원을 받는 공동번역이겠지만, 선구적인 단독번역의 노력이 물꼬를 터야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이나 주제, 인물이나 문헌상의 편식 현상을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연구의 필요성이다. 아직도 연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요원한 일일지도 모르나, 적어도 학문 외적인 요인에 의한 연구의 쓸림 현상은 없어야 할 것이다.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고자 했던 애초의 시도가 성공적이었는지 필자는 자신할 수 없다. 다만 한국 유식학 연구의 중요한 국면은 스케치했다고 보인다. 보다 구체적인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부록의 목록에 실린 것은 생략하였다

- 고익진(1970) 『범어 한글 표기안 : 부 교정 한글신묘장구대다라니, 『동국사상』 5
- -- (1986) 『팔천송반야경 : 범영한대조』.
- 김광식(2000a)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 김광식(2000b) 『한국불교 100년』, 민족사.
- 김광식(2000c) 『김법린과 피압박민족대회』, 『불교평론』, 2000년 봄호.
- 김동화(1954) 『불교학개론』(등사판).
- 김묘주(1996) 『해심밀경』, 민족사.
- 김묘주(1997) 『유식사상』, 경서원.
- 서대원(2001) 『해심밀경』, 시공사.
- 신규탁(1999) 『21세기 동아시아의 불교: 금세기의 반성에 붙여』, 『전통과 현대』봄호.
- 심재관(2001) 『탈식민시대 우리의 불교학』, 책세상.
- 심재관(2005) 『선택과 배제-한국불교학 속의 서구불교학의 위상』,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5년 춘계 심포지움 초록집』
- 오형근(1983) 『유식사상연구』, 불교사상사.
- 오형근(1989) 『唯識과 心識思想 研究』, 불교사상사.
- 이 만(2000) 『한국유식사상사』, 장경각.
- 加藤智遠(1913, 1939) 『唯識綱要』, 法藏館.
- Schmithausen, L.(1976) On the Problem of the Relation of Spiritual Practice and Philosophical Theory in Buddhism, *German Scholars on India*, New Delhi, 235-250.
- Schmithausen, L.(1984) On The Vijnaptimātra Passage in Saṃdhinirmocanasūtra VIII. 7, *Acta Indologica* VI, 433-455.
- Schmithausen, L.(1987) *Ālayavijñāna, On the Origin and the Early Development of a Central Concept of Yogācāra Philosophy*, Part I, II, Tokyo,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Buddhist Studies.

## 부록 - 논문 목록

1. 이하 목록은 집필 과정에서 추가되거나 삭제된 것이 있으므로 본문 내용과 수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용상의 큰 차이는 없다.
2. 논문의 열거는 저자-연도 방식으로 하였다.

姜錦子	1994	웅의 集合無意識에서의 個性의 解放과 아리아식의 淨化(捨) : 相談者의 個性의 解放과 아리아식의 捨의  필요성	東國大學校佛敎人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강명희	2000	說一切有部와 瑜伽行派의 修行論 比較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박사학위청구논문
	2004	『瑜伽師地論』『聲聞地』의 構成과 그 修行體系	불교연구 20	한국불교연구원
	2005	圓測法師의 入唐行蹟(1)	불교연구 23	한국불교연구원
姜玉女 (度忍)	1995	S. Freud 無意識과 阿賴耶識의 比較 研究 : 佛敎의 相談의 理論的 基礎를 위하여	東國大學校敎育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1999	행동주의와 유식학의 비교연구	종교교육학연구 9	아름디운세상
강종구	2000a	유식학의 상담이론적 요소 탐구	보조사상 13	普照思想研究院
	2000b	相談에 대한 唯識學的 接近	東國大學校大學院	박사학위청구논문
高明錫	1986	虛妄分別의 轉換構造와 三性說에 대한 研究 : 初期 唯識의 「中邊分別論」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고영섭	1998	文雅 圓測과 그 敎學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박사학위청구논문
	1999	문아의 일승학 : 중관과 유식의 일승적 화해(和會)	한국불학사	연기사
高翊晉	1972	圓測 : 大乘佛敎의 큰 氣流	博友社	韓國人物大系 1 : 古代의 人物
	1978	西明唯識의 基本立場	동국사상 10, 11	東國大學校佛敎大學
곽진희	2001	『中邊分別論』의 空思想에 關한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구본술	2002	유식 윤회관에서 '전환'의 의미	불교연구 18	한국불교연구원
權坦俊	1984	華嚴과 解深密經의 十地說 比較	韓國佛敎學 09	韓國佛敎學會
吉末仙	1989	新羅中代 法相宗의 性格 : 專制王權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釜山大學校敎育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金敬玉	1990	唯識二十論에서의 唯識無境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金南允	1983	統一新羅時代 法相宗의 成立과 그 信仰	서울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1984	新羅中代 法相宗의 成立과 信仰	한국사론 11	서울大學校國史學科
	1992	고려중기 佛敎와 法相宗	한국사론 28	서울大學校國史學科

金南允	1995	신라 法相宗 연구	서울大學校大醫院	박사학위청구논문
金東華	1967	唯識所依經論上の心識說, 續前 - 佛敎 唯心思想의 發達(4)	불교학보 05	東國大學校佛敎文化研究所
	1969	대승론부상의 심식설 - 불교 유심사상의 발달(5) -	불교학보 06	東國大學校佛敎文化研究所
	1970	中國佛敎의 唯識學說 - 佛敎 唯心思想의 發達(6)	불교학보 07	東國大學校佛敎文化研究所
김명우	1990	八識說의 成立에 관한 考察	東亞大學校大醫院	석사학위청구논문
	2000	Mahayanasutralamkara(『대승장엄경론』S.T.S)에 있어서의 유식무경(vijnapti-matrata)의 논증	정토학연구 3	韓國淨土學會
金妙柱	1990	唯識無境思想의 興起背景	한국불교학 15	韓國佛敎學會
	1993a	印度 唯識思想의 전개	수다라 08	海印寺僧伽大學
	1993b	唯識學의 心識構造에서 본 兒童 性格心理의 논리적 고찰 : S. Freud와 C. G. Jung의 性格理論과 관련하여	東國大學校大醫院	박사학위청구논문
	1994	韓國 唯識思想의 전개 양상 - 한국불교의 원류를 찾아서	수다라 09	海印寺僧伽大學
	1996	『해심밀경』의 『분별유가품』에 나타난 지관행법 체계	宗敎研究 12	韓國宗敎學會
	1997a	중국과 한국 유식사상의 전개	유식사상	경서원
	1997b	유식사상의 성립 배경	유식사상	경서원
	1997c	유식학의 三性·三無性觀 : 『해심밀경』의 제4·5품을 중심으로	유식사상	경서원
	1997d	유식학에서 心識論의 성립과정	유식사상	경서원
	1997e	唯識經論에 나타난 佛身觀	大蓮李永子博士華甲紀念論叢)天台思想과 東洋文化	불지사
	1997f	인식과 心理의 존재구조와 작용원리	유식사상	경서원
	1997g	『유식삼십송』번역문	유식사상	경서원
	1997h	깨달음의 근거와 실현의 원리 : 유식학의 轉依 이론을 중심으로	白蓮佛敎論集 7	白蓮佛敎文化財團
	1997i	정신현상의 作用因 이론 비교 : 유식학의 종자설과 정신역동학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23	韓國佛敎學會
1998a	유식학의 阿賴耶識이론과 意識의 無意識이론 비교	大醫院研究論集 28	東國大學校大醫院	
1998b	『成唯識論』의 二障 형성 및 소멸 원리	한국불교학 24	韓國佛敎學會	
1998c	유식학의 중심사상	석림 32	東國大學校釋林會	
金法麟	1932a	唯識二十論의 研究, 1	불교 96	佛敎社
	1932b	唯識二十論의 研究, 2	불교 97	佛敎社
	1932c	唯識二十論의 研究, 3	불교 98	佛敎社
	1932d	唯識二十論의 研究, 4	불교 99	佛敎社

金福順	1993	8·9세기 신라 瑜伽系 佛教	한국고대사연구 6	한국고대사연구회
김봉희	2001	『瑜伽師地論』의 菩薩地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박사학위청구논문
	2000	『瑜伽論』本地分과 攝決擇分の 菩薩地 比較	大學院研究論集 30	東國大學校大學院
金仕業	1990	第七末那識의 成立과 그 體性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1996	識과 空性과의 관계: 『중변분별론』을 중심으로	伽山學報 5	伽山佛敎文化研究院·伽山學會
	1997a	末那識의 始原과 그 定立: 漢譯 유식문헌을 중심으로	천태사상과 동양 문해(대련이영자 박사화갑기념논총)	불지사
	1997b	초기 유가행파의 대상 부정논리에 관한 비판적 탐구	미래불교의 향방 (미천목정배박사 화갑기념논총)	藏經閣
	1997c	現象의 成立에 관한 唯識學의 연구	東國大學校大學院	박사학위청구논문
	1997d	唯識에 의거한 經驗世界의 屬性: 그 허구성과 허구성 속의 법칙성	한국불교학 23	韓國佛敎學會
	1998	唯識無境에 관한 해석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 三類境說을 전후한 인도·중국 교설의 비교를 통하여	불교학보 35	東國大學校佛敎文化研究院
	1999	唯識에서 識은 왜 實在하는가	불교학논총 (전운덕총무원장 화갑기념)	敎仁寺·天台佛敎文化研究院
	2000	阿賴耶識의 執受와 別 연구: 安慧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26	韓國佛敎學會
	2001	唯識說의 緣起 해석: 識轉變說을 중심으로	天台學研究 3	天台佛敎文化研究院
金相鉉	1993	新羅 法相宗의 成立과 順標	가산학보 2	伽山佛敎文化研究院
金聖觀	1985	阿賴耶識의 相續性	한국종교 10	圓光大學校宗教問題研究所
	1990	阿賴耶識과 無意識: 불교사상과 체·계·용사상의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1	東洋哲學會
김성철	1996	초기 유식학파 三性說 연구: 『攝大乘論』所知相分을 중심으로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2002	초기 유식학파의 분별 개념	인도철학 12,1	인도철학회
	2003	유가행파 수행에서 의연의 역할과 의의	보조사상 21	보조사상연구원
	2004a	초기 유가행파 문헌에서 궁극적 실재를 보는 찰	구산논집 9	구산장학회
	2004b	5유가지와 입무상방편상	보조사상 22	보조사상연구원
	2005	초기 유가행파의 무분별지 연구	東國大學校大學院	박사학위청구논문
김수아	2004	『유가사지론』에 나타나는 성명처에 관한 고찰	한국불교학 36	韓國佛敎學會
金淑	1990	알리아識의 概念形成에 관한 成立史의 考察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金映瓊	1992	『大乘起信論』의 阿黎耶識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金煥泰	1975	太賢의 菩薩藏阿毘達磨古述合과 成唯識論古述記에 대하여	동국사상 08	東國大學校佛敎大學
김영필	1995	識의 현상학	철학논총 11	嶺南哲學會· 以文出版社
	1998	후설 자아론과 유식(唯識)의 앙상블	동서정신과학 1,1	韓國東西精神科學會
金領姬	2000	唯識의 四分說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金溶甲	1964	唯識哲學研究	大邱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金仁德	1987	高麗時代 瑜伽思想의 展開와 彌勒信仰	한국미륵사상연구	東國大學校出版部
金載千	1987	Samkhya와 唯識에서의 轉變說 比較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金正心	1992	心識思想의 發達과 唯識의 第六意識 研究	全北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김제란	2000	眞諦 唯識과 현獎 唯識 熊十力 『新唯識論』의 유식 사상 비교	철학연구 23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01	유식 불교에 근거한 웅심력의 신유학 사상 -「신유식론」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29	韓國佛敎學會
	2005	唯識 불교의 세 유형-無相唯識과 有相唯識, 그리고 新唯識論-	불교학보 42	東國大學校佛敎文化研究所
김진태	2000	不定心所 中 尋·伺에 대한 考察	한국불교학 26	韓國佛敎學會
	2001	世親 唯識思想의 淵源과 成立에 關한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박사학위청구논문
金春色	1993	唯識空觀과 三無性說에 대한 研究	東國大學校佛敎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김치은	1998	外界 對象의 否定에 關한 一考察 - 陳那의 『觀所緣緣論』을 중심으로	白蓮佛敎論集 8	白蓮佛敎文化財團
	1999	淸辯과 護法의 空有論爭에 대하여	한국불교학 25	한국불교학회
	2000	유식학에서 바라본 인간의 유무성과 무무성	한국불교학 27	韓國佛敎學會
	2001	阿賴耶識의 存在에 對한 因明論理的 證明과 그 所在에 關한 考察	보조사상 15	普照思想研究院
	2002	유식학에서의 이제설에 대한 고찰	회당학보	회당학회
	2003a	瑜伽行派의 止觀과 關聯心所法에 대하여	불교학보 40	東國大學校佛敎文化研究所
2003b	眞如에 대하여 -「成唯識論」을 중심으로 -	불교학연구 07	불교학연구회	
김호성	1998	『解深密經』의 哲學的 立場과 禪의 修證論: 勝義·了義之教을 중심으로	구산논집 1	九山獎學會
남수영	1995	알리아시설과 무의시설의 비교 고찰: 唯識佛敎와 分析心理學을 중심으로	인도철학 05	印度哲學會
	1998	『유식이십론』의 극미설 비판	인도철학 07	印度哲學會·民族社
唐阿美 (惟果)	1998	『解深密經』과 圓測의 疏釋	大學院研究論集 28	東國大學校大學院
	2000	圓測의 解深密經疏釋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都美洙	1998	唯識思想의 轉識得智說과 愚思想의 自己實現說에 關한 比較考察	圓光大學校敎育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柳承周	2002	元曉의 唯識思想 研究: 心識論과 煩惱論을 중심으로	東國大學校大學院	박사학위청구논문
목경환	1995	心所法의 分類體系에 대한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2002	『성유식론』에서 식의 상호 관계 연구	한국불교학 32	韓國佛敎學會
陸禎培	1964	根本識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文章洙	1986	三性論에 관한 研究	東亞大學校大醫院	석사학위청구논문
朴純子	1993	輪迴論에 관한 唯識學의 研究	東國大學校大醫院	석사학위청구논문
박인성	2004	『중변분별론』의 중도 개념	한국불교학 38	韓國佛敎學會
박재은	2003	『解深密經』止觀修行의 현실적 수용에 관한 연구: 『分別瑜伽品』을 중심으로	東國大學校大醫院	석사학위청구논문
朴鍾鴻	1962	圓測의 唯識哲學 - 韓國哲學史(3)	한국사상강좌 5	韓國思想講座編輯委員會
朴中觀	1979	唯識三〇頌	세계의 대사상 35	徵文出版社
朴志植	1993	新羅 見登의 唯識觀과 起信論觀에 대한 研究 : 大乘起信論同異略集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大醫院	석사학위청구논문
방인	1991	『成唯識論學記』를 통하여 본 太賢의 상가哲學에 대한 理解	불교와 역사(이기영 박사고회기념논총)	韓國佛敎研究院
	1992	新羅 佛敎思想史에서의 太賢 唯識學의 意義	백련불교논집 2	白蓮佛敎文化財團
	1993	成唯識論學記를 통해 본 太賢의 勝論哲學 이해	철학 39	한국철학회
	1994	佛敎의 實在觀 : 唯識佛敎를 中心으로	동서양의 실제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太賢의 唯識哲學 研究	서울大學校大醫院	박사학위청구논문
배의용	1997	유식학의 유가행과 현상학적 방법 : 언어적 관점에서의 비교	한국불교학 23	韓國佛敎學會
	1998	현상학적 환원과 유식학적 지관에서 언어의 문제	철학 57	韓國哲學會
	2000	법상유식학과 E. 후설의 지각이론	철학연구 73	大韓哲學會
배의용 : 이만	1999	불교 유식학과 후설 현상학의 심상이론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불교학 25	韓國佛敎學會
백진순	2003	『성유식론』의 가설(upacara)에 대한 연구	철학 76	한국철학회
	2004	『성유식론』의 가설(upacara)에 대한 연구 : 은유적 표현의 근거에 대한 고찰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5	『성유식론(成唯識論)의 화인(火人)의 비유에 나타난 은유의 문제	불교학연구 11	불교학연구회
법성	1993	유식(唯識)불교사상의 실천적 의미	수다라 08	海印寺僧伽大學
邊相燮	1994	唯識 二性說의 諸法 및 法界觀 研究	東國大學校大醫院	석사학위청구논문
徐濟甲	2000	唯識에 있어서 마음의 構造에 관한 考察 : 『成唯識論』을 中心으로	東亞大學校大醫院	석사학위청구논문
聖巖	1982	中國 明末의 唯識學者 및 그 思想	이주불교적원류(제5회 국제불교학술회의)	大韓傳統佛敎研究院
성정	1993	유식사상의 재조명 : 圓測法師의 유식사상을 中心으로	수다라 08	海印寺僧伽大學
	1997	원족의 재발견, 1 : 원족법사, 그는 누구인가	佛敎春秋 5	불교춘주사
成會慶	1990	『Ethica』와 『解深密經』에 나타난 眞理概念 比較研究	慶北大學校大醫院	석사학위청구논문
孫基成 (性觀)	2002	圓測의 一闡提成佛論 成立에 관한 研究	위덕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宋辰顯	1991	大乘起信論疏·別記에 나타난 元曉의 心識思想 研究	高麗大學校敎育大學院	석사학위취구논문
송찬우	1996a	成唯識論	승가 13	중앙승가대학교
	1996b	阿彌耶識 構造 研究: 成唯識論을 中心으로	논문집 5	중앙승가대학교
	1997	成唯識論에 나타난 四緣說 小考: 成唯識論 卷7을  중심으로	승가 14	중앙승가대학교
	2000	『성유식론』에 나타난 宗자설  연구	불교연구 17	한국불교연구원
申雲淵	1992	解深密經과 瑜伽師地論 攝決擇分の  관계에  대한 考察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취구논문
申賢淑	1979	唐 窺基와 新羅 圓測의 相違說 研究, 1: 成唯識論 十大論師의 解釋에 關하여	한국불교학 04	韓國佛敎學會
	1980	唐 窺基와 新羅 圓測의 相違說 研究, 2: 新羅 唯識家의 四分義說	불교학보 17	東國大學校佛敎文化研究所
	1984	圓測의 佛敎的 認識論	哲學思想의 諸問題: 韓國佛敎의 根源深究 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1	圓測의 生涯와 그 資料에  관한  검토	佛敎思想論叢(鏡 海法印申正午博 士華甲紀念)	荷山出版社
	1994	신라 唯識學의  興성과  발전	한국불교사의 재조명	불교시대사
沈曉燮	1998	新羅 瑜伽派 信仰의 歷史的 性格: 7·8세기를  中心으로	동국역사교육 6	東國歷史敎育會
安明姬	1999	瑜伽唯識의 波羅蜜行	한국불교학 25	韓國佛敎學會
	2000	瑜伽唯識의 修行體系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박사학위취구논문
安相煥 (法淨)	1997	唯識學의 心識說과 深層心理學의 比較 研究: S. Freud와 C. G. Jung의 意識과 無意識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佛敎大學院	석사학위취구논문
안성두	2002a	瑜伽行派에  있어 見道(darśana-mārga)說(1)	인도철학 12,1	인도철학회
	2002b	『瑜伽師地論』의 緣起說	불교학연구 05	불교학연구회
	2003a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에  있어  *128중 수면(anusaya)*설의 성립과 그  특징	인도철학 12,2	인도철학회
	2003b	《解深密經》에  나타난  유가행  유식파의  단초	불교학연구 06	불교학연구회
	2004a	유가행파의  견도(darśana-mārga)설(II)	보조사상 22	보조사상연구원
	2004b	唯識性(vijñaptimātrata) 개념의  유래에  대한  최근의  논의의  검토	불교연구 20	한국불교연구원
	2005	유식문헌에서의  삼성설(三性說)의  유형과 그  해석	인도철학 19	인도철학회
안환기	2001	유식불교의  해탈관:  말라식을  中心으로	종교연구 23	韓國宗敎學會
	1995	唯識佛敎의  解脫觀: 末那識을  中心으로	서울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취구논문
梁在敬 (禪超)	1998	圓測의 解深密經疏 研究: 三性·三無性を  中心으로	東國大學校大學院	박사학위취구논문
	1998	圓測의 解深密經疏 研究: 三性·三無性を  中心으로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취구논문
廉点子	2002	佛身論 研究: 唯識學派의 三身說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취구논문

吳亨根	1967	阿賴耶識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취గు논문
	1968	阿賴耶識의 三相	동국사상 04	東國大學校佛敎學會
	1973a	心識과 因果思想	불교사상 1	寶蓮閣
	1973b	原始唯識의 興起에 대한 考察	대학원연구논집 03	東國大學校大學院
	1974a	十大論師 및 諸家論師에 對한 小考	동국사상 07	東國大學校佛敎學會
	1974b	法相宗의 敎判과 敎理의 分科	불교사상 5	佛敎思想社
	1974c	唯識學의 五位百法에 대한 考察	대학원연구논집 04	東國大學校大學院
	1974d	第八阿賴耶識의 淵源에 對한 考察	불교학보 11	東國大學校佛敎文化研究所
	1975a	唯識敎學에서의 修行과 그 證果	불교학보 12	東國大學校佛敎文化研究所
	1975b	第七末那識 成立에 대한 考察	한국불교학 01	韓國佛敎學會
	1975c	心識의 四分說에 대한 小考	대학원연구논집 05	東國大學校大學院
	1976a	圓測法師와 一乘思想	한국불교학 02	韓國佛敎學會
	1976b	圓測法師의 心識說에 대하여	불교학보 13	東國大學校佛敎文化研究所
	1976c	世親의 五蘊觀에 대한 小考	東國思想 09	東國大學校佛敎大學
	1976d	唯識學上의 十地菩薩과 十婆羅密	대학원연구논집 06	東國大學校大學院
	1977	新羅 唯識思想의 特性과 그 歷史의 展開	한국철학연구 상	東明社
	1978	圓測의 和思想 : 一乘의 唯識觀	불교학보 15	東國大學校佛敎文化研究所
	1979a	唯識學의 禪定觀	석림 13	東國大學校釋林會
	1979b	中國 窺基法師의 敎判思想	불교학보 16	東國大學校佛敎文化研究所
	1980	元曉思想의 唯識學의 研究	佛敎學報 17	東國大學校佛敎文化研究所
	1982a	末那識의 名稱과 所依說에 대한 考察	불교학보 19	東國大學校佛敎文化研究所
	1982b	元曉大師의 唯識思想考	東國思想 15	東國大學校佛敎大學
	1982c	唯識學上의 中有思想과 阿賴耶識	한국불교학 07	韓國佛敎學會
	1983	四緣과 十因에 대한 小考	유식사상연구	佛敎思想社
	1984a	圓測의 唯識思想	한국의 사상	얼음사
	1984b	유식학상의 八識說과 九識說	불교사상 11	佛敎思想社
1985a	瑜伽唯識을 통한 彌勒信仰 傳來	한국문화의 원불교사상 (문신김성용박사회갑기념)	圓光大學校出版局	

吳亨根	1985b	唯識思想의 成立史	승가 2	中央僧伽大學
	1985c	瑜伽論에 나타난 胎兒觀	東國思想 18	東國大學校佛敎大學
	1985d	瑜伽師地와 十七地	한국불교학 10	韓國佛敎學會
	1986a	初期 唯識思想의 淵源과 阿賴耶識 成立에 對한 研究 : 心意識思想과 八識成立을 中心	東國大學校大學院	박사학위청구논문
	1986b	唯識學上의 第六意識研究	불교학보 23	東國大學校佛敎文化研究院
	1986c	瑜伽論과 元曉의 九種心住思想	한국불교학 11	韓國佛敎學會
	1987a	新羅 瑜伽思想의 展開와 彌勒信仰	한국미륵사상연구	東國大學校出版部
	1987b	新羅 圓測法師의 止觀思想	동양학 17	禮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1988	新羅 圓測法師의 唯識思想 研究	불교학보 25	東國大學校佛敎文化研究院
	1989	대승불교의 지관사상	僧伽 6	中央僧伽大學
	1990a	원측법사의 생애와 유식사상	중국대륙의 문화 1	동국대학교
	1990b	圓測法師 : 중국, 일본에  영향 준  국제적 唯識學者	한국불교인물사상사	민족사
	1991a	瑜伽論의 止觀思想에  대한 考察	불교사상논총(경해법 인신영오박사회갑기념)	荷山出版社
	1991b	唯識學에 나타난 物質論	불교학보 28	東國大學校佛敎文化研究院
	1992	新羅 唯識學의 展開	한국불교문화사상사 상(가산이지관스님 회갑기념논총)	伽山文庫
	1993	新羅의 瑜伽論 導入과 研究	韓國宗敎思想의 再 照明 上(震山韓基斗 博士華甲紀念)	圓光大學校出版局
	1995	大乘莊嚴의 菩薩道	韓國佛敎學 20	韓國佛敎學會
	1996	圓測法師의 大乘行과 大功德觀	佛敎學報 33 文化研究院	東國大學校佛敎
	1997a	圓測法師의 四種淸淨과 八種淸淨 修行思想	천태사상과 동양 문화(대련이영자 박사회갑기념논총)	불지사
	1997b	瑜伽行派의 大乘과 七大性思想	보살사상(태공송월주 스님회갑기념논총)	同論叢刊行委員會
1997c	원측의 재발견, 2 : 중국에서의 원측의 위상	佛敎春秋 5	불교춘추사	

吳亨根	1999	圓測法師의 三種自性論	불교학논총(전운덕 증무원장학갑기념)	敎仁寺·天台佛 敎文化研究院
	2000	원효의 유식학 연구와 그 실태	원효사상의 현격 조명1	佛敎春秋社
웅각	1993	唯識宗綱要와 五位百法	수다라 08	海印寺僧伽大學
元義範	1971	(梵漢對照日譯參照)瑜伽師地論 : 우리말 翻譯案	동국사상 6	東國大學校佛敎學會
	1975	圓測의 唯識思想, 1	한국불교사상사(승산 박길진박사회갑기념)	圓光大學校圓佛 敎思想研究院
	1982	唯識三十頌略釋	현대불교사상	集文堂
	1983	成唯識論의 感覺觀	철학 19	한국철학회
유가행파 문헌 강독회	2004	菩薩地(Bodhisattvabhūmi) 4장: 「진실의품」(tatvārtha-pāṭalam)번역	불교원전연구 7	東國大學校佛敎 文化研究院
柳德山	1991	唯識論에 있어서 疎外(alienation)에 대한 考察	불교와 역사(이기영 박사회갑기념논총)	韓國佛敎研究院
柳德相	1994	唯識思想을 通한 有漏心所의 作用에 關한 研究 : 人間疎外에 대하여	東國大學校佛敎 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唯眞 (鄭峻基)	1997	煩惱心所說의 變遷上에서 본 二障의 體性에 關한 研究	한국불교학 23	韓國佛敎學會
유학경	1998	唯識에서 唯心으로	구산논집 2	九山獎學會
은정희	1983	元曉의 三細·阿黎耶識說 : 大乘起信論의 경우	哲學 19	大韓哲學會
	1990	원효의 유식사상(唯識思想)	한국불교에 띄운 하두	우리출판사
應覺	1995	唯識宗의 緣起論	修多羅 10	海印僧伽大學
이광한, 김진성	1995	唯識佛敎와 精神分析間의 比較	동국의학 3	동국대학교의학 연구소
이기영	1993	攝大乘論 所知相分第三 譯	불교연구 10	韓國佛敎研究院
이동우	1992	意識作用의 哲學的 研究 : 成唯識論의 心王法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1997	成唯識論에 나타난 一切唯識에 관한 논의	한국불교학 23	韓國佛敎學會
	2002	唯識學派의 阿賴耶識 種子論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박사학위청구논문
	2003	「성유식론」에 나타난 種子의 유래에 관한 논의	한국불교학 33	韓國佛敎學會
李萬	1976	唯識學上의 種子說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1980	東西 認識論의 比較研究 : 第八阿賴耶識을 中心으로	대학원연구논집 10	東國大學校大學院
	1981	第八阿賴耶識과 無意識에 關한 比較 : C.G.Jung의 無意識觀을 中心으로	韓國佛敎學 06	韓國佛敎學會
	1982	種子說의 淵源에 관한 研究 : 業思想을 中心으로	韓國佛敎學 07	韓國佛敎學會
	1984	大覺國師 義天의 唯識觀	佛敎學報 21	東國大學校佛敎 文化研究院

李萬	1986a	日本 法相關係 諸疏에 引用된 太賢法師의 唯識思想	불교학보 23	東國大學校佛敎文化研究院
	1986b	成唯識論學記에 引用된 本母釋의 內容	한국불교학 11	韓國佛敎學會
	1987	見登의 大乘起信論同異略集에 引用된 太賢의 唯識思想 : 第四 建立唯識同異門을 中心	한국불교학 12	韓國佛敎學會
	1988	新羅 太賢의 成唯識論學記에 관한 研究 : 資料의 研究를 中心으로	東國大學校大學院	박사학위청구논문
	1990	法相關係 論疏와 新羅人の 撰述書 : 散逸本을 中心으로, 1	불교학보 27	東國大學校佛敎文化研究院
	1991a	太賢의 成唯識論學記에 나타난 圓測의 唯識思想	불교사상논총(경해법인사정오박사학갑7집)	荷山出版社
	1991b	法相關係 論疏와 新羅人の 撰述書 : 散逸本을 中心으로, 2	불교학보 28	東國大學校佛敎文化研究院
	1991c	慈藏의 根本敎學思想 : 法相敎學의 研鑽을 中心으로	불교문화연구 2	靈鷲佛敎文化研究院
	1992a	新羅 唯識家들의 '眞性'에 관한 諸說 : 善珠의 「唯識分量決」을 中心으로	한국불교문화사상사상(가산이지관스님회갑기념논총)	伽山文庫
	1992b	新羅 義賓의 唯識思想	한국불교학 17	韓國佛敎學會
	1992c	法相關係 論疏와 新羅人の 撰述書 : 散逸本을 中心으로, 3	불교학보 29	東國大學校佛敎文化研究院
	1993a	道倫의 瑜伽師地論記에 관한 資料의인 性格과 그 唯識思想	慶州市新羅文化宣揚會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4 : 新羅佛敎의 再照明
	1993b	新羅人 撰述의 「成唯識論」疏 散逸本 復元	불교학보 30	東國大學校佛敎文化研究院
	1994a	新羅 道證의 唯識思想	가산학보 3	伽山佛敎文化研究院
	1994b	百濟 義榮의 唯識思想 : 一佛乘說을 中心으로	한국불교학 19	韓國佛敎學會
	1995a	高麗 彌授의 唯識思想 : 祖丘의 「慈悲道場觀法集解」를 中心으로	한국불교학 20	韓國佛敎學會
	1995b	唯識佛敎의 心識論	동양철학 6	韓國東洋哲學會
	1996a	瑜伽唯識의 修行觀	청호불교논집 1	靑祐佛敎文化院
	1996b	高句麗 義淵의 唯識敎學 : 中國 地論宗의 法上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한국불교학 21	韓國佛敎學會
	1997a	佛敎의 唯識思想과 認知科學	未來佛敎의 方向(彌天睦楨培博士學甲記念論叢)	藏經閣
1997b	朝鮮時代 法相敎學思想	보살사상(태공승월주스님회갑기념논총)	同論叢刊行委員會	
1998a	東西洋의 '意識'과 그 對象에 관한 比較 : 唯識學上의 意識說을 中心으로	한국불교학 24	韓國佛敎學會	

	1998b	朝鮮後期 白坡巨巖의 唯識思想	佛敎學報 35	東國大學校佛敎文化研究院
	1999a	元曉의 中邊分別論疏에 관한 研究	元曉學研究 4	元曉學會·元曉學研究院
	1999b	新羅人의 章疏를 통해 본 慈恩의 唯識思想	불교학보 36	東國大學校佛敎文化研究院
李萬	2000a	圓測의 『解深密經疏』	한국유식사상사	藏經閣
	2000b	圓測의 유식사상 : 太賢의 『成唯識論學記』를 중심으로	한국 유식사상사	藏經閣
	2000c	義濟의 유식사상	한국 유식사상사	藏經閣
	2000d	慈藏의 根本敎學思想 : 法相敎學의 연찬을 중심으로	한국유식사상사	藏經閣
	2000e	成唯識論에 관한 新羅 唯識家들의 註釋	한국유식사상사	藏經閣
	2000f	新羅人 撰述의 法相關係 論疏 : 散逸本을 중심으로	한국유식사상사	藏經閣
	2000g	신라 玄隆의 敎學思想 : 唯識思想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26	韓國佛敎學會
	2001	신라불교에 있어서 『섭대승론』의 영향	한국불교학 30	韓國佛敎學會
	2002	신라 경흥의 유식사상	한국불교학 32	韓國佛敎學會
	2003	신라 신방의 유식사상	한국불교학 35	韓國佛敎學會
李祖九	1987	唯識佛敎의 心理治療 研究	漢陽大學敎育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이상옥 (亨雲)	2004	阿賴耶識의 轉依와 五相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이승호	1999	唯識과 密敎의 實踐論 導出原理 比較研究 小考	大學院研究論集 29	東國大學校大學院
	2001	唯識說과 密敎의 實踐原理 比較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박사학위청구논문
李榮植	1995	『唯識三十頌』의 주석적 연구	圓光大學校圓佛敎學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이영주	1992	唯識無境의 展開 : 三性論을 中心으로	東亞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李完錫 (正法)	1993	解深密經의 三種法相과 三種無自性性에 대한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李鍾寅	1983	第八識의 所緣行相에 대한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이종철	2000	vijnana에 관한 논문	불교학연구 01	불교학연구회
李芝洙	1986	世親의 『二十頌』, 『三十頌』, 『三性論』	불교연구 2	韓國佛敎研究院
	1987	實在의 本性 : 中邊分別論 第一 辯相品에 대하여	佛敎研究 3	韓國佛敎研究院
	1988	實存에 대한 認識 : 無着의 (菩薩地) (4) Tatvartha (眞實義品)	釋林 22	東國大學校釋林會
	1992	世親의 『五蘊論』	普照思想 5·6合	普照思想研究院
	1994	『中邊分別論』第三 眞實品에 대해 : 安慧의 '疏'를 중심으로	佛敎學報 31	東國大學校佛敎文化研究院
	1998a	安慧의 『唯識三十頌釋』 譯解	가산학보 7	伽山佛敎文化研究院·伽山學會

李芝洙	1998b	『大乘莊嚴經論』第九「菩提品」의 대승사상	東國思想 29	東國大學校佛敎大學
	1998c	安慧의 「釋」에 따른 唯識三十頌의 이해	불교학보 35	東國大學校佛敎文化研究院
	2001	세친의 〈三性論〉(Tri-svabhāva-nirdeśa)에 대하여	불교학보 38	東國大學校佛敎文化研究院
	2002	唯識學派의 修行法 - 無着의 『攝大乘論』을 중심으로 -	가산학보 9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지중	2000	初期唯識의 阿梨耶識觀 研究 : 眞諦譯의 『攝大乘論釋』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李台粉	1994	唯識實性에 관한 研究 : 攝大乘論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1997	瑜伽의 實踐修觀과 轉依	미래불교의 향방 (미전목정배박사 회갑기념논총)	藏經閣
李惠淑	1997	唯識 三性三無性說에 관한 연구	圓光大學校敎學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일지	1993	앞에 대한 깨달음 : 阿賴耶識의 인식과 실천	수다라 08	海印寺僧伽大學
林性默 (雪松)	1998	瑜伽師子派의 사마타-비파사나(Samatha-vipasyana, 止觀)에 대한 연구 : 『瑜伽師地論』의 「奢摩地」와 『解深密經』의 分別瑜伽品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全明星	1970	初能變識의 研究 : 世親 唯識學說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1991a	攝大乘論에 나타난 阿黎耶識說	불교학논문집(법계 명성회갑기념)	雲門寺僧伽大學 同門會
	1991b	攝大乘論에 대한 小考	불교학논문집(법계 명성회갑기념)	雲門寺僧伽大學 同門會
	1991c	唯識學 研究 : 世親 唯識說을 中心으로	불교학논문집(법계 명성회갑기념)	雲門寺僧伽大學 同門會
	1991d	唯識學을 中心으로 한 十地說	불교학논문집(법계 명성회갑기념)	雲門寺僧伽大學 同門會
	1991e	阿賴耶緣起說에 關하여	불교학논문집(법계 명성회갑기념)	雲門寺僧伽大學 同門會
	1998	三能變識의 研究 : 成唯識論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大學院	박사학위청구논문
鄭京蘭	1996	알라야식(Alayavijñana)의 형성과정과 그 철학적 근거	韓國精神文化研究 院韓國學大學	석사학위청구논문
鄭貴子	1999	佛敎의 深層心理의 識轉變에 관한 研究 : 『唯識三十頌』을 中心으로	東亞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정영근	1989	圓測의 一闡提成佛論 要旨	泰東古典研究 5	翰林大學校泰東 古典研究所
	1991a	圓測의 敎判態度	佛敎와 歷史(李箕永 博士古稀紀念論叢)	韓國佛敎研究院

	1991b	大賢의 「大乘起信論」理解: 「大乘起信論內義略探記」를 중심으로	東과 西의 思想世界 (蔣峰金知見博士華 甲紀念師友錄)	民族社
정영근	1993	圓測의 教體論	태동고전연구 10	翰林大學校泰東 古典研究所
	1995	新羅 唯識學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종교사연구 3	韓國宗敎史學會
	2001	「成唯識論」의 義燈의 圓測說 비판	불교학연구 03	불교학연구회
	2002	一切衆生の 成佛에 대한 圓測의 입장	불교학연구 05	불교학연구회
	2004	한국유식과 중국유식-그 연속과 불연속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문화학회
	2005	신라유식학의 종교적 지향	동양문화연구	학습원대학동양 문화연구소
	1994	圓測의 唯識哲學: 新·舊 唯識의 批判的 綜合	서울大學校大學院	박사학위청구논문
鄭濟奎	1991	新羅下代 法相宗 研究	檀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鄭敏基 (唯眞)	1994	輪廻의 主體로서 阿賴耶識에 關한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1998	心王心所說의 變遷上에서 본 二障 연구	東國大學校大學院	박사학위청구논문
鄭澈鎬	1992	第八阿賴耶識의 語義 研究: 「攝大乘論」·「成唯識論」을 中心으로	東亞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鄭泰焄	1964	唯識二十論通解, 1	佛敎生活 1	佛敎生活社
	1965a	唯識二十論通解, 2	佛敎生活 2	佛敎生活社
	1965b	唯識二十論通解, 3	佛敎生活 5	佛敎生活社
	1974	圓測法師의 敎學과 그의 位置	佛敎思想 6	佛敎思想社
정현숙	2000	유식불교의 종자설과 용의 원형론의 비교 고찰	종교교육학연구 10	韓國宗敎敎育學會
鄭惠全	2000	唯識思想에서의 末那識의 諸問題	東亞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정호영	2002	「중변분별론」의 공성	인문학지 24	총복대 인문학연구소
趙明基	1941	圓測의 著書와 思想?	진단학보 13	震檀學會
	1949	圓測의 思想	진단학보 16	震檀學會
	1966	圓測: 梵語와 唯識의 學僧	韓國의 人間像 3	新丘文化社
趙性澤	1987	解深密經(Samdhinirmocana-Sutra)勝義諦相品에 관한 研究: 眞諦譯 佛說解節經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曹洙東	1982	三性論에 關한 研究: 攝大乘論을 中心으로	嶺南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趙順姬	2002	唯識學에서의 苦의 原因에 關한 研究: 成唯識論을 中心으로	위덕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조환기	1990	Yogacarabumi Sastra(瑜伽師地論)의 사마-디(Samadhi) 研究: Samahitabumi(三摩呬多地)를 中心으로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2001	유식(唯識)에서 Vijnapti의 개념	인도연구 6,1	한국인도학회
차상엽	1999	초기 유식학파의 無分別에 대한 연구: 「攝大乘論」을 중심으로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차상엽	2003	『보리도차제론』의 유가행 연구	보조사상 21	보조사상연구원
	2005	사마타 수행으로서의 9종심주 연구	회당학보 10	회당학회
차승후	1998	瑜伽行派의 心所有法에 대한 考察	한국종교사연구 6	韓國宗敎史學會
	1999	瑜伽行派의 十二支緣起說: 『Abhidharma Samuccaya』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18	한국종교학회
崔東熙	1975a	圓測의 生涯와 思想: 三國의 精神世界의  깊이, 1	광장 28	세계평화교수협의회
	1975b	圓測의 生涯와 思想: 三國의 精神世界의  깊이, 2	광장 29	세계평화교수협의회
	1975c	圓測의 生涯와 思想: 三國의 精神世界의  깊이, 3	광장 30	세계평화교수협의회
崔成烈	1987	高麗 中期 水精結社와 瑜伽宗	한국불교학 12	韓國佛敎學會
최연자	1999	정신현상에 대한 유식철학적 연구: 심층심리학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범한철학 19	高麗大學校哲學研究會
崔源植	1993	太賢의 菩提戒 이해와 現實問題 인식	伽山學報 2	伽山佛敎文化研究院
	1997	신라 遁倫의 瑜伽戒 인식	가산학보 6	伽山佛敎文化研究院·伽山學會
최원호	2001	『成唯識論』에 나타난 轉依개념	延世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최유라	2002	阿賴耶識의 眞妄義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최정규	1998	공과 유 논쟁: 중관과 유식의 대화	논쟁으로 보는 불교철학	에문서원
	1999	원측 唯識學의 哲學的 基盤	구산논집 3	九山獎學會
	2000	無着(Asanga) 唯識哲學의 研究: 『攝大乘論』을 中心으로	高麗大學校大學院	박사학위청구논문
최종남	1993a	新羅 道倫의 瑜伽論記에 대하여	니당불교의 재조명	大韓傳統佛敎研究院
	1993b	『顯揚聖敎論』에 대한 再考察	印度哲學 03	印度哲學會
	1998	初期 瑜伽行派에 있어서 三學에 대한 研究: 『顯揚聖敎論』卷7을 中心으로	가산학보 7	伽山佛敎文化研究院·伽山學會
	2000	『顯揚聖敎論』 品 構造에 대해서	印度哲學 09	印度哲學會
	2001	『유가사지론』 『성문지』 산스크리트어 원전연구: silasamvara(戒律儀)	대각사상 4	大覺思想研究院
	2001	印度佛敎의 五蘊觀 研究: 初期 唯識學說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최훈동, 이부영	1986	불교의 유식사상과 분석정신치료이론의 비교사론	신경정신학 25-1	태선주
태선주	2002	『唯識二十論』의 唯識無境論證 연구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토니노 푸치오니	1996	高麗時代 法相宗 敎團의 趨移	서울大學校大學院	박사학위청구논문
하영진	1999	유식사상의 識개념 고찰: 『유식 30송』을 중심으로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韓文奎	1995	阿摩羅識과 淨分唯識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한지경	1991	唯識에서 認識과 存在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1992	유식사상에 있어서 식의 지향성	철학과 현상학 연구 6	한국현상학회

한자경	1996	후설 현상학의 선험적 주관성과 불교 유식철학의 아뢰아시의 비교	철학과 현상학 연구	한국현상학회
	1997	唯識불교의 실천론 : 二障의 극복으로서의 해탈의 실천론	동서문화 29	啓明大學校人文科學研究所
	1998	유식무경의 철학적 의미	동양철학	한국동양철학회
	2000	『成唯識論』에서의 識과 境의 관계 연구	東國大學校大學院	박사학위청구논문
	2001	無分別智와 眞如	불교학연구 03	불교학연구회
韓鍾萬	1982	圓測과 唯識學의 世界	아주불교적원류 (제5회 국제불교학술회의)	대한전통불교연구원
	1990	圓測의 唯識學과 日本唯識學의 傾向	한국종교 15	圓光大學校宗教問題研究所
	1998	元測의 唯識思想	한국불교사상의전개	民族社
허능수	1990	원측(圓測)의 불교철학사상에 관하여	조선학연구 2	연변대학출판사
許永鎬	1929a	了別三十頌의 釋, 1	불교 64	佛敎社
	1929b	了別三十頌의 釋, 2	불교 65	佛敎社
	1929c	了別三十頌의 釋, 3	불교 66	佛敎社
	1930	了別三十頌의 釋, 4	불교 71	佛敎社
허인섭	1998	유식(唯識)불교의 관점에서 본 명상 교육의 도덕적(道德的) 지평 고찰	철학사상 8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許一範	1991	티벳譯 圓測 『解深密經疏』에 관한 基礎研究	동국사상 24	東國大學校佛敎大學
洪應敬	2005	唯識思想에서 轉依에 관한 研究	위덕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洪顯植	1956	唯識宗系의 賴耶緣起論에 對하여	全北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黃晟起	1971	圓測의 唯識學觀에 關한 研究	문교부교육보고서	東國大學校
	1976	圓測의 唯識學說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박사학위청구논문
黃旭 (秀山)	1984	第八阿賴耶識의 緣起論에 대한 小考 : 種子의 現行·熏을 中心으로	동국사상 17	東國大學校佛敎大學
	1990	現代 分析心理學과 唯識學의 識觀 比較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청구논문
	2000	無着(Asanga)의 唯識學說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박사학위청구논문
Sang -yil Kim	1983	Wonchuk's transformation of Yogacara Buddhism : A process view	동방사상논고도원 유승국박사학위기념 논문집	중로서적
Uhlmann Patrick R.	2000	A reappraisal of Wonchuk's exegetical attitude = 圓測의 註釋學的 觀點에 關한 再評價	九山論集 4	九山獎學會